

연두색 번호판 효과?...상반기 수입차 법인 등록 급감

40% 수준 수입차 법인차량 비율 33%까지 떨어졌 광주 183대, 10%p 감소...전남 603대, 2%p 줄어

올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 가운데 법인차량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40% 수준이던 법인 승용차 비율은 33%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차값이 8000만원을 넘어서는 법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전남 역시 소폭 감소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내놓은 '6월 수입 승용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정부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면서 법인차의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 명의의 등록 승용차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간 최저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수입 승용차 중 법인 등록 비율은 40% 수준이었다가 지난 2017년 35.2%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9.7%까지 상승했다. 지난 2013년 6만2564대였던 연간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0만7677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이긴 하지만 33%대로 하락했는데, 업계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효과로 수입 법인차 증가세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광주의 경우 올 6월까지 수입 법인 등록 승용차가 183대로 전년 같은 기간(273대)보다 감소했고, 법인차 점유율은 전년도 17%에서 올해 7.4%

로 9.6%포인트 줄었다.

전남도 652대에서 603대로 줄었고, 점유율은 24%에서 2%포인트 감소한 22%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10만대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1~5월 법인 명의의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 브랜드는 BMW로 1만1837대를 기록했고,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만383대), 포르쉐(1592대), 테슬라(1503대), 렉서스(1320대) 순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개인과 법인 등록 차량 모두를 포함한 국내 수입 등록차량은 12만5652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3만513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만111대, 테슬라 1만7310대, 볼보 7185대, 렉서스 6421대 순이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 Y'로 1만41대가 등록됐다. 또 다른 테슬라 차량 '모델 3'은 7026대로 2위, BMW '520'가 6551대로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994대), 렉서스 'ES300h'(3476대) 등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부가 올해부터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한 영향으로, 수입 법인 승용차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 교통과에 놓인 연두색 번호판. (광주일보 DB)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미래 모빌리티 체험 '4D 라이드' 리뉴얼

극한의 자동차 경주 체험

현대자동차가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의 대표 콘텐츠 '4D 라이드'의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8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17년 처음 선보인 4D 라이드는 극한의 자동차 경주인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체에 탑승해 실제 주행을 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체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다. 리뉴얼된 4D 라이드는 로보틱스 등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새롭게 구성됐다. 기체에 탑승해 다양한 모빌리티와 힘을 합쳐 재난 속 인류와 동물들을 구조하는 스토리로, 최신 4D 장비와 기술로 생동감을 더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초대형 동형 LED 스크린과 6축 모션 플랫폼, 다채로운 4D 특수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뛰어넘는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4D 라이드' 제작에는 영화 해리포터의 시각특수효과를 맡은 글로벌 VFX 스튜디오 더밀이 참여했으며, 레고랜드와 워너브라더스 파크의 라이드를 제작한 대만의 브로전트 테크놀로지사가 모션플랫폼을 제작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4D 라이드 메인쇼 공간 전경.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4D 라이드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접목해 리뉴얼됐다"며 "실감나는 미래 모빌리티 체험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리뉴얼된 4D 라이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여름맞이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금호타이어가 8일부터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하는 여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비 프리미엄'과 '마제스티X SOLUS TA92', 'TA51', '크루넷 HP71', 'HP51'을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4개 구매 시 오는 8월14일까지 'GS칼텍스이마트' 결합 모바일 상품권(4개 구매시)을 증정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호타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또 7월15일부터 한 달간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majestyX)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오는 15일부터 8월14일까지 전국 골프존 매장에서 개최된다. 경품으로는 금호타이어 최고급 타이어 마제스티X SOLUS TA92 4본(1명), 미즈노 아이언 세트(1명), 캘러웨이 페러다임 Ai스모크 드라이버(1명)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골프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디지털 온라인 광고 '현대 SUV 오리지널' 공개

SUV 라인업 다양한 매력·서비스 로맨스·스릴러 등 장르로 소개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콘셉트의 영상물료 소비자들과 가깝게 다가선다.

현대자동차는 7일 "디지털 광고 '현대 SUV 오리지널' 시리즈를 지난 6월1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SUV 관련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대 SUV 오리지널은 SUV 라인업의 다양한 매력과 서비스 혜택을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등 장르로 소개하는 온라인 영상 광고 시리즈다. 현대 SUV 오리지널은 서바이벌 예능 컨셉으로 풀어낸 'SUV 피지컬' 편, 안전 사상을 강조한 '안전각성' 편, 선택형 보증 제도를 그린 '보증기간' 편, 정비 인프라와 긴급 출동 서비스를 보여주는 '블루핸즈' 편 등 다양한 장르로 현대 SUV의 매력을 선보인다.

시리즈에는 영화 '밀수'와 드라마 '지옥', 'The 8 Show(더 에이트 쇼)' 등에 출연한 배우 박정민이 에피소드마다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보여준다.

현대 SUV 오리지널은 현대차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또 디지털 광고 공개와 연계해 방송인 하하, 아이돌그룹 오마이걸의 멤버 미미, 크리에이터 숏박스 등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랜덤이지만 괜찮아' 에피소드 두 편을 7월 중 유튜브에 공개한다.

'랜덤이지만 괜찮아'는 출연진이 현대차 SUV로 국내를 여행하는 예능 콘텐츠다.

현대차는 아울러 고객이 친구나 가족 또는 연인



과 함께 현대 SUV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고객 경험 프로그램 '1박 2일 랜덤 국내 여행'을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접수가 종료된 1회차 여행(7월20~21일) 외에, 오는 14일까지 2회차(7월 27일~28일) 여행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여행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및 마이현대 앱에서 응모할 수 있고 당첨자는 19일 이전에 발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 SUV 오리지널을 통해 고객에게 다채로운 SUV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7135대 사전 예약

지난달 27일 출시 이후 11일간

르노코리아는 8일 "최근 선보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사전 예약 대수가 7135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11일간 현장 부스와 전국 전시장에서 접수한 예약 건수를 합산한 수치

다.

가격과 연비 등 주행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고객이 높은 기대를 보인다고 르노코리아는 설명했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중순 이후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별 가격을 공개하고 각 전시장에서 차량을 전시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 글로벌 시장 전기차 등록 9.0% ↑

현대차 EV9 등 선전 4위 유지

올해 전 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 수가 전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작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225만9000대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테슬라가 주력 차종인 모델Y와 모델3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한 40만6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1위에 올랐다.

2위를 차지한 폭스바겐그룹은 2.1% 증가한 27만4000대를 판매했다. 3위는 2.7% 늘어난 22만5000대를 판 스텔란티스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0.1% 감소한 21만6000대를

판매하며 4위를 유지했다.

주력 모델인 아이오닉5, EV6의 판매량은 부진했지만, 코나 일렉트릭, 니로EV, EV9은 순조로운 판매 행진을 이어갔다고 SNE리서치가 전했다.

지역별 등록 대수는 유럽(119만대), 북미(68만3000대), 중국 제외 아시아(28만5000대) 등의 순이었다.

유럽은 다소 둔화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중국 제외 시장에서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에 각국 전기차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어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남미, 호주 등으로 새로운 판로를 넓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